

지배인의 사무소 겸 주거지였던 '모토코야'

이 건물은 스가야 제철소 지배인의 사무실 겸 주거지였습니다. 제철소를 경영했던 다나베 가문의 임명을 받은 지배인은 원자재 구입부터 철강 출하 준비 등 제철소의 업무 전반을 감독했습니다.

주거지에는 작업실을 병설하여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다양한 품질의 철을 최종적으로 선별하고 등급을 매겼습니다. 고가의 제품을 다루는 중요한 작업이었기에 지배인은 작업실에 면해 있는 격자 모양의 벽을 통해 감시했습니다. 이런 벽이 설치된 덕분에 지배인은 주거지에서 선별 작업을 감시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2층 건물은 1833년의 화재 직후에 재건된 것으로 보입니다. 작업장 외에도 다다미가 깔린 6개의 방과 부엌, 욕실이 있었습니다. 무라케(현장 감독)나 부지배인이 거주하던 조출한 공동 주택(나가야)에 비해, 지배인의 거주지는 당시 마을 내 특권적인 지위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배인은 제철소의 귀중한 철의 재고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이용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도둑질을 막기 위해 주방 근처 벽에 붙였던 경고문입니다. 경고문에 적혀 있는 내용은 '12월 12일'이라는 날짜뿐입니다. 속설에 따르면 이날은 1594년에 악명 높은 도적이자 무법자였던 이시카와 고에몬이 가마솥에 넣어 삶아 죽이는 팽형에 처해진 날입니다.